

## 서평 | Review

## 원주민의 시각으로 본 라틴아메리카 식민시대 연구: 찰스 깁슨의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sup>1)</sup>

김윤경

### 1. 정복과 식민화

16세기 황금을 찾아 나선 유럽인들에게 ‘오래된 신세계’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으며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중세 암흑기를 거쳐 오랜 굶주림과 고통에 지친 유럽인들에게 이 새로운 땅은 하나의 돌파구이자 희망이었다. 이 ‘오래된 신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아메리카의 땅과 사람들을 바꾸어갔다. 그것이 바로 정복과 식민화의 시작이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의 정복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타자’ 화하고 식민화함과 동시에 자신들을 문명화하고 근대화해갔다. 어느 시인은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에서 잉카의 후예가 조상에게 빌려 간 돈에 대한 이자를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장면을 풍자적으로 노래했다.<sup>2)</sup> 침묵과 차가운 무관심으로 무시된 이 잉카 후손의 시위는 지난 500여 년 동안

1) Charles Gibson, *The Aztecs Under Spanish Rule: A History of the Indians of the Valley of Mexico 1519-1810*(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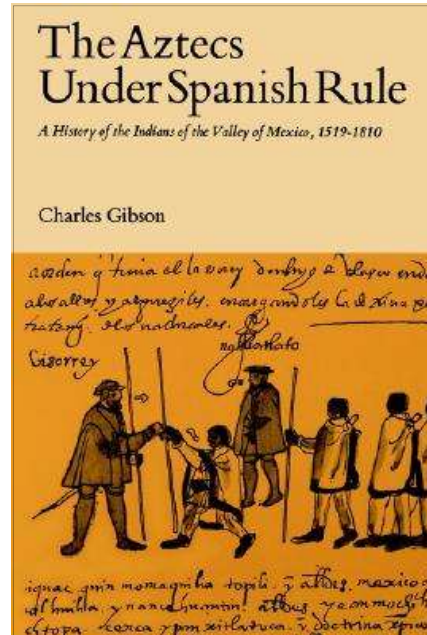
2) 박노해, 「잉카의 후예가」,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느린 걸음, 2014, pp. 92-93.

유럽이 아메리카의 토지와 귀금속과 원주민을 강탈해 온 수탈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복 후 식민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이 문제는 아메리카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주제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문명인 아스테카 문명을 이룩했던 원주민들이 정복 후 어떻게 식민화되었는지, 그들과 스페인인들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식민화에 대한 제1세대 연구자들은 스페인인과 원

주민의 관계에 관해 갈등과 저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다. 윌리엄 프레스코트(William Prescott)으로 대표되는 1세대 연구자들은 16세기 정복사에 관한 저술에 나오는 스페인의 연대기를 토대로 이 문제를 연구했다.<sup>3)</sup> 그들은 정복 초기 원주민들을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졌던 군사적 충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는 정복 초기에 관한 설명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군사적 충돌이 특히 멕시코 중부에서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고, 이후의 충돌도 산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다음 세대 연구자들은 충돌과 갈등이라는 개념 대신에 스페인령 아메리카 문명의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식민화 과정에 관한 연구에 접근했다. 로버트 리카드(Robert Ricard)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원주민 사회의 여러 요소가 유럽적인 요소로 빠르게 대체되었음을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

3) 예를 들어 프레스코트의 다음과 같은 저작이 여기에 속한다. *The History of the Conquest of Mexico*(1843), *A History of the Conquest of Peru*(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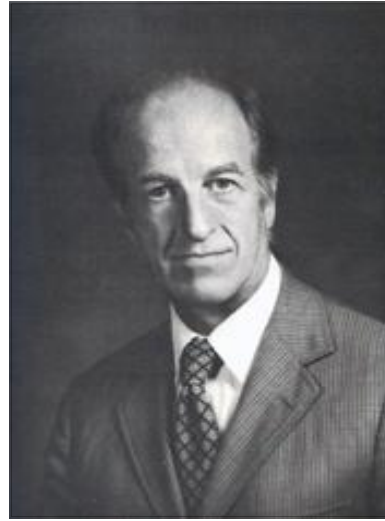
강조했다.<sup>4)</sup> 리카드는 관리들과 성직자들이 왕에게 보낸 문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럽인이 원주민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 특히 정신적 종교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복 후 식민화 과정에서 교회가 수행한 역할에 주목하여, 원주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초래한 유일하고 자의적인 존재가 교회였다고 설파했다. 연구자들이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보통 정복 후 탁발수도사들이 기록한 문서, 흔히 말하는 연대기이다 보니, 이러한 입장이 멕시코뿐 아니라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식민화 과정을 설명하는 기본 해석이 되었다.

그런데 이 두 세대 연구자들은 모두 정복 후 원주민 사회가 유럽인 정복자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과 그러한 변화에 유럽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역사의 패자인 원주민보다는 승자인 스페인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정복과 식민화 과정의 역사에 관한 서술에서 주요 등장인물이었던 것은 원주민이 아니라 유럽인이었다. 정복 전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정복자의 활동이었으며, 교회가 수행한 ‘영혼의 정복’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수도사의 역할이었다. 원주민의 반응은 주요 등장인물의 활동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다뤄질 뿐이었다.

이러한 종래의 연구 방향을 바꿔 놓은 연구가 바로 찰스 김슨의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 1519~1810 멕시코 계곡 원주민의 역사』이다. 김슨은 이 책에서 스페인인보다는 원주민에 강조점을 두었다. 김슨의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복 이후 독립시기까지의 원주민의 역사를 다루면서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관계에 관해서 종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에서 김슨은 멕시코 계곡이라는 아스테카 제국의 심장부 지역이 스페인 통치하에서 원주민 사회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

4) Robert Ricard, *The Spiritual Conquest of Mexico, La "Conquête spirituelle" du Mexique*(1933), trans. by Lesley Byrd Simpson(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는지를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김슨의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멕시코 식민지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 최고의 역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정복 이후 독립시기까지 멕시코 중부지역 원주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난 후 본격적으로 식민지 시대 원주민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찰스 김슨

(출처: <http://www.historians.org/>)

## 2. 민속역사학자, 찰스 김슨

1920년에 태어나 1985년에 생을 마감한 찰스 김슨은 멕시코의 식민지 시대에 관한 한 가장 완성도 높은 연구를 이룩한 민속역사학자(ethnohistorian) 중 한 사람이다. 미국역사학회 회장까지 역임한 김슨은 민속역사학자로서 아메리카의 원주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가 학문적 생애동안 주로 다루었던 문제는 정복 이후 원주민의 히스패닉화 혹은 유럽화 등, 원주민 사회가 스페인인의 지배에 어떻게 대응해나갔는가라는 것이었다. 윌리엄 프레스코트, 로버트 리카드 같은 역사가들이 멕시코의 원주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스페인인의 자료와 개념을 가지고 스페인인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한 것과는 달리, 김슨은 원주민의 관점에서 정복 이후 독립 시기까지 멕시코 역사를 바라보려고 했다. 한편, 인류학자로서도 김슨은 다른 인류학자들과 달랐다. 일반적으로 인류학자들이 정복 이전의 원주민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는 달리, 김슨은 정복 이후의 원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김슨은 역사학과 인류학이

만나는 역사인류학의 세계에서 한 획을 그은 독보적인 존재였다.

사실, 김슨은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 외에도 이 책을 전후로 원주민에 관한 연구서를 냈다. 우선, 이 책이 나오기 12년 전인 1952년에 이미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연구서 『16세기의 틀라스칼라』를 썼다.<sup>5)</sup> 김슨은 처음으로 나우아어로 된 카빌도 자료를 이용하여 틀라스칼라 지방 원주민의 역사를 분석했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 원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연구서로,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초기 역사에 대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슨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루이스 한케(Lewis Hanke)가 이미 역사서술에서 원주민들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했다.<sup>6)</sup> 하지만 한케의 저술에서 영웅은 여전히 스페인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진술이 원주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었다. 하지만 김슨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다시 말해서, 연구의 초점을 원주민에 맞추고 틀라스칼라 지방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스페인령 아메리카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국 단위의 연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지만, 김슨처럼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은 당시로서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한편,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이 출판된 지 10여 년 후에는 『중앙아메리카 원주민 편람』 제15권을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편집하여 출판했다.<sup>7)</sup> 이 책에서 김슨은 원주민에 관한 그림, 연대기, 증언 등 중요한 자료를 편찬해냄으로써 원주민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김슨은 정복 식민지 시대 원주민의 역사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중요한 민속역사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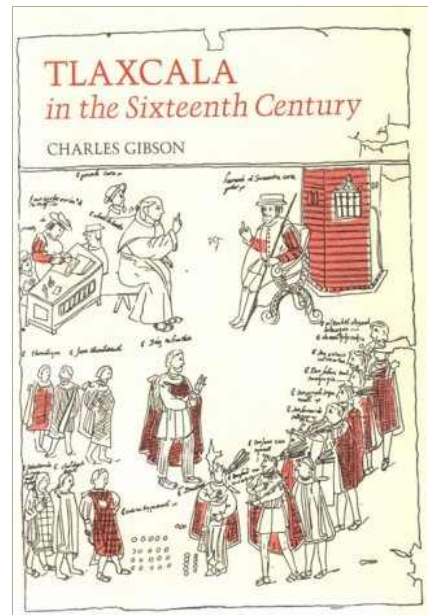
5) Charles Gibson, *Tlaxcala in the Sixteenth Century*(New Have: Yale University Press, 1952).

6) Lewis Hanke, *The Spanish Struggle for Justice in the Conquest of America*(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49).

7) Charles Gibson, "Prose Sources in the Native Historical Tradition," in Robert Wauchope(ed.), *Handbook of Middle American Indians*, 15, pp. 311-321, 1975.

### 3. 정복 이후 지배와 종속의 원주민 역사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은 1951년에 쓰기 시작해서 1963년 1월에 완성될 정도로 김슨이 오랜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심혈을 기울인 책이다. 참고문헌까지 포함하여 총 6백 페이지가 넘는 이 책에서 찰스 김슨은 정복 이후 독립시기까지의 원주민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김슨은 멕시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의 문서고를 뒤져가며 각종 연대기, 법정 자료, 스페인인의 기록뿐 아니라, 원주민의 기록까지 조사하여 원주민의 삶을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더구나 이 책은 김슨의 전작인 『16세기의 틀락스칼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을 틀락스칼라에서 멕시코 계곡(Valle de México)으로 확장했다. 김슨은 역사지리학적인 면에서 왜 멕시코계곡을 연구지역으로 선택했는지,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김슨에 따르면, 멕시코 계곡은 아스테카 전체로 보면 작은 지역에 불과하지만 아스테카 문명이 번성한 곳이며, 정복 이후 아스테카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김슨은 시기도 16세기를 넘어 식민시대 전체로 확장했다. 김슨은 원래 19세기와 20세기도 다루려고 했으나, 식민시대가 워낙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1810년 독립시기까지로 연구시기를 한정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 김슨은 정복 이후 3세기 동안 원주민, 특히 아스테카인이 스페인인에게 종속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다뤘다.



16 세기의 틀락스칼라

(출처: <http://ecx.images-amazon.com/>)

우선, 이 책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연구의 초점을 종래의 스페인인에서 원주민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김슨은 이 점을 책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2장은 정복 당시 멕시코 계곡에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이 책의 연구대상이 원주민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김슨은 원래 멕시코 계곡에 살던 열 네 개의 원주민 부족 중에서 정복 당시에 남아 있던 아홉 개 부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각각 어떤 부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슨의 설명에 따르면, 식민시대 초기에는 부족 정체성이 강했으나,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새로운 식민적인 조직 방식이 부족 개념을 대체하게 되면서 정체성에 관한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갔다. 한편, ‘사람들’이란 제목의 6장에서는 정복 이후의 원주민을 귀족(principal)과 평민(macegual), 노예로 분류하여, 식민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백인과의 혼혈로 생기는 메스티소까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 김슨이 구체적인 사료분석을 통해서 스페인인의 문화를 취하려는 원주민 귀족의 태도라든가, 귀족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평민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은 원주민의 다양한 생존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책에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정복 이후의 아스테카 사회를 우선 변화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김슨은 기본적으로 아스테카 사회가 스페인인의 정복으로 변화했음을 인정한다. 변화는 정치, 종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김슨은 이러한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정복 초기 40~50년 동안이었다고 주장한다(p. 404).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정복 직후부터 스페인인은 원주민 사회의 제도를 바꾸나갔다. 김슨은 3, 4, 7장에서 정복 이전 원주민 사회의 기본적인 정치적 단위가 사적인 엔코미엔다 제도 및 주·종마을(cabecera-sujeto)체제로, 나중에는 코레히미엔토(corregimiento)로 재편되는 정치적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재편과정을 통해 원주민 사회는 스페인인이 통치하

기에 편리한 사회로 거듭 태어났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종교적인 변화도 수반했다. ‘종교’라는 제목의 5장에서 ‘영혼의 정복’이라고 부르는, 원주민의 기독교 개종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정복 자체가 기독교적 소명이었음을 언급하면서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관계에서 기독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임을 강조한다. 김슨에 따르면, 16세기에는 원주민이 기독교를 순순히 받아들였으나, 17세기 말쯤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혐오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가 엔코미엔다를 받아들이면서 엔코미엔다의 억압으로부터 원주민을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p.112).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슨이 리카드처럼 정복 이후 아스테카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엔코미엔다 같은 제도와 공생하면서 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엔코미엔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종종 교구사제가 엔코미엔다 농장주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엔코미엔다와 교회는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원주민이 피부로 느낀 변화는 사회적인 변화였다. 김슨은 8,9,10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원주민 사회가 식민지 지배체제로 재편되면서 원주민은 과중한 조세 부담을 느껴야 했으며, 어떤 원주민 공동체도 그러한 부담을 장기간 견뎌낼 수가 없었기에 과도한 조세는 큰 스트레스였다(p.217). 노동 강제와 토지수탈도 원주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변화 중 하나였다. 원주민은 원래 노동을 공동체에 즐겁게 참여하는 기회로 생각했지만, 스페인인의 지배 이후 노동에 대한 태도와 관념이 바뀌었다. 원주민에게 노동은 이제 사회적·도덕적·정신적 범주가 아니라 경제적·신체적 범주가 되었다. 스페인인들이 엔코미엔다를 통해서 원주민의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노동은 주인의 돈벌이를 위한 고통스러운 육체적 행위로 전락해버렸다. 한편 원주민의 토지 상황은 식민시대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스페인인은 원주민에게 돈으로 구입하거나 특권을 이용하여 강제



로 빼앗거나 왕으로부터 하사품으로 받는 식으로 토지를 획득했다. 결국 스페인인은 아시엔다라는 대농장의 소유자가 되어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를 침해하게 되었고, 대다수 원주민은 여러 가지 압력으로 말미암아 아시엔다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p. 298).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김슨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하나는 변화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연속성이라는 측면이다. 김슨은 변화를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원주민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변화, 즉 원주민 사회와 연속선상에 있는 변화임을 강조한다. 스페인인이 정치적으로 원주민 사회를 주·종마을 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본 토대로 삼았던 것은 “원주민 사회의 하위 제국, 혹은 제국이 되기 전의 수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p. 34). 이것은 바로 아스테카의 정치단위 알테페틀(altepetl)을 일컫는 것이다. 원래 알테페틀은 몇 개의 칼푸이(calpulli)로 구성되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칼푸이의 수장 틀라토아니(tlatoani)가 알테페틀을 다스렸다. 스페인인은 정복 이후 틀라토아니(tlatoani)가 있는 칼푸이를 주마을로 그 외의 칼푸이를 종마을로 재편했다. 사적인 조직이었던 엔코미엔다도 이러한 알테페틀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나중에 가서 형성된 교구나 코레히미엔토도 모두 기본적으로는 정복 이전의 알테페틀이라는 정치단위를 토대로 형성되었다. 스페인인은 식민지 체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아스테카 사회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의 측면은 식민화 과정에서 원주민 지배집단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정복 이후 왕족은 쇠퇴했으며, 일부 원주민 지배계층은 저항하다 죽음을 맞게 되면서 원주민 귀족의 지위가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스페인인이 지배하는 식민지 사회에서도 여전히 상층계급의 지위를 누리며 명맥을 유지했다. 스페인인은 원주민 지배계층을 원주민과 스페인 식민 당국을 연결해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

하고, 협조적인 원주민 지배계층이라면 지위를 보장해주고 토지와 특권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협력적인 원주민 귀족은 스페인식 복장을 입을 수 있는 권리, 칼이나 총을 찰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받았다. 김슨은 원주민 지배계층이 틀라토아니에서 식민지 지방 정부의 최고 우두머리인 고베르나도르(gobernador)나 시의회 의원직인 알칼데(alcalde)와 레히도르(regidor)로 이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주민 지배계층이 식민지 정복 이후에도 식민지 정부의 관료집단으로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슨이 변화를 설명하면서 전제로 삼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지배와 종속의 문제인데, 복 이후의 변화가 스페인과 원주민 간의 지배와 종속이라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변화라는 점을 결론에서 분명하게 제시한다. 김슨은 원주민이 스페인인에게 착취당했음을 설명해주는 ‘흑색선전’(leyenda negra)이라는 표현이 정복 이후 원주민과 스페인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복의 결과는 스페인인의 지배와 원주민의 종속이며, 정복으로 발생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사회에서 지배층의 지위를 누린 원주민 귀족조차도 사실은 식민지 귀족의 최하층이었으며, 권한도 스페인인과는 달리 지방수준으로 제한되었다. 일반 원주민은 토지를 수탈당하고 엔코미엔다의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이처럼 김슨은 연속선상의 변화에서 드러나는 지배와 종속의 성격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서 김슨은 원주민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정복 이후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과 억압의 상황에 있는 원주민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원주민 귀족에 관해서는 책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하층집단을 이루는 원주민 대다수의 삶에 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다. 그나마 원주민 노동에 관한 9장에서 원주민 노동자, 특히 아시엔다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부채 노

예, 강제로 동원된 아시엔다 일꾼 페온(peón), 작업장(obraje)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김슨은 아시엔다가 당시 토지를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해준, 대안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해석과 다른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p. 255). 이러한 입장은 부채노예의 삶이 그나마 다른 노동자의 삶보다 나았다고 보는 것으로서, 달리 보면 원주민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열악하고 비참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료의 문제일수는 있겠지만, 원주민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게다가 이 책은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의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책이 1519년부터 독립시기인 1810년까지 멕시코 계곡 지역의 원주민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긴 기간 동안 원주민은 변화에 대해서건 연속적인 상황에 대해서건 크고 작은 저항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러한 원주민의 저항 문제를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슨은 강제 이주(congregación)나 토지수탈, 강제 징세 등에 대한 원주민의 산발적인 저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원주민 귀족에 관한 언급에 그치고 있고 독립 직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원주민의 반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김슨은 연구의 초점을 스페인인에서 원주민으로 이동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주민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체로 내세우는 데는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슨은 원주민의 가장 대표적인 대응방식 혹은 적응방식으로 알콜 중독을 들면서, 세계 역사상 식민지 시대의 원주민만큼 알콜 중독에 쉽게 빠진 경우는 없다고 말한다(p. 409). 원주민은 고통스러운 삶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술 마시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원주민의 대응방식이었다. 하지만 원주민은 스페인인의 지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저야 깁슨이 애초에 생각했던 원주민과 스페인인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4. 찰스 깁슨 이후 식민사 연구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찰스 깁슨의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은 식민지 시대 멕시코 중부 지역의 원주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이 시기 원주민에 관한 연구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깁슨이 이 연구서를 낸 이후 멕시코 민속역사학자 대부분은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의 한계에 도전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예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깁슨의 제자인 테일러(Taylor)의 『식민지 시대 오아하카의 지주와 농민』과 『음주, 살인, 반란』이다.<sup>8)</sup> 테일러가 앞의 책에서는 오아하카의 원주민들이 식민지 시대 말까지 계속해서 정복 이전의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뒤의 책에서는 살인이나 음주라는 것이 식민지 시대에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고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테일러는 기본적으로 깁슨의 연속성 관점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음주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깁슨과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 음주를 정복 이후의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새로이 나타난 원주민의 수동적인 혹은 자포자기적인 대응양식으로 본 깁슨과 달리, 테일러는 음주가 정복 이전부터 있었던 원주민의 관행이며, 정복 이후 스페인인이 술을 마시는 방식에 원주민이 새롭게 동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이 두 책에서 테일러는 스페인어

8) William B. Taylor, *Landlord and Peasant in Colonial Oaxaca*(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3); *Drinking, Homicide and Rebellion in Colonial Mexican Villag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9).

자료뿐 아니라 원주민 언어로 쓰인 자료까지 섭렵함으로써 김슨이 다루지 못한 부분인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주민 세계의 내부, 즉 사적인 영역이나 내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원주민어로 쓰인 자료가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면서였다. 로버트 해스켓(Robert Haskett)은 스페인어 자료뿐 아니라 나우아어로 된 자료를 토대로 식민지 시대 쿠에르나바카(Cuernavaca) 지역의 원주민 시 정부에 관해 연구했다.<sup>9)</sup> 『원주민 통치자들: 식민지 시대 쿠에르나바카의 시 정부에 관한 민속역사학』에서 해스켓은 ‘연속성’의 관점에서 식민지 시대 원주민 시정부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배했는지, 원주민 상층 계급이 스페인인의 지배문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레베카 혼(Rebecca Horn)은 연구의 범위를 원주민 사회의 정치뿐 아니라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여 코요아칸 지역을 중심으로 16~17세기 중엽까지 멕시코 중부의 나우아를 사용하는 원주민과 스페인인의 관계, 특히 정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sup>10)</sup> 이 두 연구는 모두 김슨의 책에서 다루어진 멕시코 계곡이라는 지역보다 범위가 좁혀졌고, 연구 대상도 원주민 사회 전체가 아니라 정치경제 영역으로 한정되면서 원주민 사회에 대한 한층 더 심도 깊은 이해를 돕고 있다.

게다가 원주민의 일상적인 삶, 문화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S. L. 클린(Cline)도 나우아어로 된 당대의 증언 자료를 이용하여 16세기 말 쿨우아칸(Culhuacan) 지역 원주민 가족, 여성, 토지보유, 상속 등에 관한 연구서를 냈다.<sup>11)</sup> 해스켓과 혼의 연구가 원주민의 정치경제 영역을 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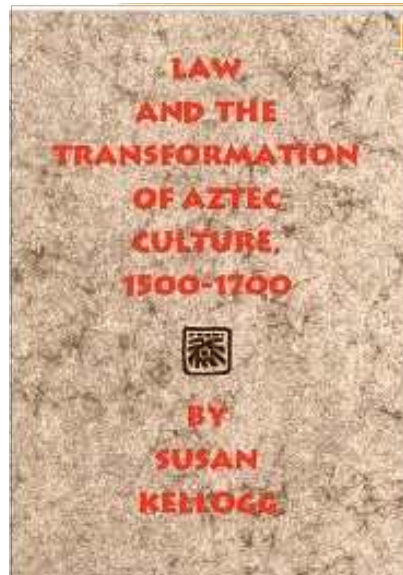
9) Robert S. Haskett, *Indigenous Rulers: An Ethnohistory of Town Government in Colonial Cuernavaca*(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91).

10) Horn, Rebecca, *Postconquest Coyoacan: Nahuatl-Spanish Relations in Central Mexico, 1519-1650*(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11) S. L. Cline, *Colonial Culhuacan, 1580-1600*(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86).

었다면, 클린의 연구는 사회문화 영역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깁슨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 그 후 록하트(Lockhart)는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역작 『정복 이후의 나우아 원주민』을<sup>12)</sup> 통해 언어, 글쓰기,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영역까지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식민지 시대 원주민 사회에 관한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 특히 아스테카 제국의 정치적 기본 단위였던 알테페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에 아스테카의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수전 켈로그(Susan Kellog)의 『법과 아스테카 문화의 변화, 1500-1700』이다.<sup>13)</sup> 켈로그는 문화적 연속성보다는 변화에 주목하면서 식민지 시대에 법이 일상생활, 여성의 삶, 가족 구조 등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식민시대 아스테카 사회에 관한 연구는 찰스 깁슨의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 이후로 본격화되었다. 연구의 초점이 스페인인에서 원주민으로 옮겨졌을 뿐 아니라, 연구 영역도 원주민 사회의 정치경제뿐 아니라 문화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지역적으로도 연구의 범위가 좀 더 좁혀지면서 식민사 연구가 한층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마야 문명이 번성했던 멕시코 남부 지역의 식민사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면서 아



수전 켈로그(Susan Kellog)의 『법과 아스테카 문화의 변화, 1500-1700』

(출처:

<http://ecx.images-amazon.com/>)

12) James Lockhart, *The Nahuatl After the Conquest: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the Indians of Central Mexico, Sixteenth Through Eighteenth Centuries*(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13) Susan Kellogg, *Law and the Transformation of Aztec Culture, 1500-1700*(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5).

스테카 지역과 마야 지역에 대한 비교 연구도 가능해지고, 그리하여 식민 시대 멕시코 원주민 사회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sup>14)</sup>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출발점에 바로 찰스 김슨의 『스페인 통치하의 아스테카인』이 놓여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 책은 식민사 연구의 분수령을 이루면서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식민사 연구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다.

---

김윤경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

14) Thomas Benjamin, *A Rich Land A Poor People: Politics and Society in Modern Chiapas*(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89); Nancy M. Farriss, *Maya Society Under Colonial Rule*(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Edward H. Moseley and Edward D. Terry eds., *Yucatan: A World Apart*(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0); Matthew Restall, Lisa Sousa and Kevin Terraciano, *Mesoamerican Voices: Native Language Writings from Colonial Mexico, Yucatan, and Guatemal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Mark Christensen, *Nahua and Maya Catholicisms: Texts and Religion in Colonial Central Mexico and Yucatan*(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등.